희년의 법

말씀: 레 25:8-24
요절: 레 25:10

오늘 공부할 본문은 희년에 관한 것입니다. 희년(禧年, jubilee, יובל, yobel 요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매주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매 안식년 일곱 번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사람과 짐승이 쉼을 누리고, 안식년에는 땅이 쉼을 누리고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쉼을 누렸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의 '속죄일'인 7월 10일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 때부터 유대인들은 땅이나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희년은 본래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집,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주는 날입니다. 한 마디로 처음 상태로 Reset을 하는 날입니다.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종도 노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보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주를 섬겼고, 그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없는 거지가 그 나라에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술집도 없고, 점집도 없고, 무당도 없고, 창녀들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모두가 지주(地主)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진 건물주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풍성한 수확을 냈습니다. 고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주인과 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이런 세상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국가(철인 국가, 왕도 정치)보다 더 나은 국가 씨스템입니다. 시편 105:3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시105:37).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어진 완벽한 씨스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고 부자도 생겼습니다. 종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팔리기도 했고, 창녀들도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땅의 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팔렸고, 이자 놀이가 금지되었지만 이자를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25절, **"네가 만일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출22:25).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원금조차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주께 받은 자기 땅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 형제에게 꾸어 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 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신23:19). 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타국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 형제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부자들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땅과 집이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이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주어졌던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건물주요, 지주였던 좋은 시절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는 해가 '**희년**'입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주신 그대로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거나 속박된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어떤 사연으로 잃어버린 땅을 무를 수 있습니다(redeem-되찾음). 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해방되고 부채는 면제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율법으로 규정하셨고 매 50년마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일거에 되돌리신 것입니다. 덕분에 이 제도는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차용하려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자는 토지 공개념도 희년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빼버린 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관심을 갖는데 이는 뿌리없는 나무, 머리없는 몸, 기름없는 등불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년은 정치인들이 법으로 제정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18,19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성경 기록이 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눅4:21)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에 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희년에 할 일들을 자신이 친히 선포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희년으로 인해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사십구 년이 되리라."**(8). 일곱 안식일을 세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채운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레23:15). 안식년을 일곱 번 채우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됩니다. 8절에서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사십구 년이 되리라."**(8)는 말씀으로 인해 희년이 **일곱 번째 안식년인 49년이란 주장이 있고, 49년을 채우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이 *큰 안식년(대안식년)이라고 해서 이 해가 '희년'이라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일곱째 안식년인 49년째 안식년의 7월의 명절인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49년째 7월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49년과 50년에 걸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산도 이와 비슷합니다.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곱 안식일을 채우고(49일)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오십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림으로 오순절(레23:16)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의 기간은 일곱 안식일을 세어서 50년째의 해라고 부릅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너는 일곱째 달 십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

게 불지니라."(9). **일곱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 일곱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불라고 하는데 이 날은 *속죄일입니다.** 7월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모두 있는데 주님은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라."**는 말씀은 온 회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해방,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있은 뒤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유, 은혜, 화평, 소망은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주께서 왜 속죄일에 희락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5: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5:1,2).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오십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10). 주님은 그 오십째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종들은 풀려납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두 형제였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십째 해에는 자유를 선포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분 해방입니다. 이사야 61:2절에 **"또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포고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은 초림 때 이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죄의 종된 자들, 사망의 종 된 자들, 마귀의 포로된 자들, 세상의 종된 자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요 8:36). 크리스천들은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박 중에서도 자유를 찾았고, 노예의 신분에서도 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 아래서 희년은 온 이스라엘 거주민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신약에서 선포된 희년은 온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은 대환란 마지막 해인 7년째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고 그 다음 해는 하늘의 왕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 땅,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왕국, 특별한 보물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10).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고,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됨으로써 이 육신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이스라엘은 대상과 세대가 전혀 다릅니다.

11절입니다. **"그 오십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11).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므로 이미 땅이 쉼을 얻고 있으며 그 해 7월 10일에 희년이 선포되면 오십째 해에는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들이나 밭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아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땅의 거름이 됩니다. 주인이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품꾼, 나그네, 타국인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의 규례와 같습니다. 종살이를 하다 해방된 사람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희년이기 때문에 아무 밭에서나 저절로 난 열매들을 먹으면 됩니다. 밭에는 아무도 거두지 않는 열매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12). 안식년에 이어 희년이 되면 땅은 동일하게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식년에 그러했던 규례대로 희년에도 똑같이 쉼을 갖습니다. 주인도 밭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소출로 거두어 창고에 쌓아 두거나 자신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양식으로 먹을 것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두지 않고 둡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 나는 소출은 모두의 것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더라도 주린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13). 10절에서 이미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10)고 하셨는데 자기 소유란 주께 받은 유업의 상속과 자기 집을 말합니다. 희년에는 그동안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고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더라도 본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에 대해 권리를 되찾고, 그 땅을 다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남에게 팔았던 땅을 되사서 자기 땅으로 회복하는데 남의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담보물로 잡혔더라면 일체의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사거나 담보물로 잡는 사람도 이 땅은 희년까지만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희년에 맞추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희년이 10년이 남았다면 그 땅은 십년의 가치 밖에 없었고, 희년인 2년이 남았다면 그 땅은 2년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땅이므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 땅의 원소유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누구라도 영구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택 거래, 땅 거래는 희년에 맞추어서 그 가격이 산정되었고, 그들 역시 희년이 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자신의 땅과 집이 남에게 영원히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둔 장치가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 대지주의 출현을 막으셨습니다. 설령 대지주가 출현했다 해도 희년에는 모두 돌려주도록 함으로써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이사야 5: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사5:8)라고 하십니다. 집들과 땅을 홀로 독점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부자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년에 남의 땅과 집을 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느 집안도 가난으로 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분(종, 노예)으로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상속은 그들의 영원한 유산으로 확증해 주심으로써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늘의 상속 유업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집안이 패망하고,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다가올 희년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안식년이 한 번 지날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이 더 구체화됩니다. 50년이 길어 보이고 내 나이가 너무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 해도 내 자식 대에는 다시 내가 처음 가졌던 땅을 회복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혁명 사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히6:19).

14절입니다.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14). 14-17절은 토지 매매에 관한 법입니다. 본래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레25:23)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땅을 사고 팔 일이 있다면 파는 자와 사는 자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곤궁한 입장을 이용해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거의 강탈하는 수준으로 빼앗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앞두고 속여서 팔아서도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희년 이후의 햇수대로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15). **"희년 이후의 햇수대로...그도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15). 토지 매매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땅을 희년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땅을 사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땅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연차(年次) 가격이 정해지고, 그 기간에 맞추어 매매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땅을 살 사람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사고 싶어할 것입니다. 땅을 팔 사람은 희년이 되기 전에 팔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고전7:31)고 합니다. 희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땅을 샀는데 곧 바로 희년이 되어 버리면 그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심에 앞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재산이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천의 재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고전7:29,30). 우리가 날 수를 세는 법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햇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햇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파느니라."**(16). **"햇수가 많은 대로"**란 말은 희년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햇수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게 하고, 햇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합니다. 가격 책정의 원칙은 **"그가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파느니라."**(16)입니다. 오래된 집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진이나 홍수가 날 지역이라면 아무도 그 집을 비싸게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면 땅이나 집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희년이 곧 다가오는데 그 땅이나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는 ***희년을 기준으로 햇수**를 세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해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같은 5년이라도 안식년이 끼어 있으면 그것은 4년짜리 땅이 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18).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주의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돌려주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등의 일은 언뜻 보기에 엄청 손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킬 때 따르는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 있는 계명이듯 안식년이나 희년에 관한 법도 약속 있는 법입니다. 희년에 관한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합니다. 이 말은 외적의 침입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전쟁은 수년, 수십 년의 경제적 손실과 회복할 수 없는 인명의 손실을 낳는다는 점에서 희년을 지킴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18). 지금 우리는 지진, 해일, 쓰나미, 역병, 테러, 전쟁, 기근 등 각종 자연 재해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이란 경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 지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 세계적 역병**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포츠 산업은 모두 stop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마비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땅에 서 있고 호텔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해 거대 시장이 휘청거립니다.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극장도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주의 법규, 주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잠21:31).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시편 4: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시4:8). 다윗은 기도하길, **"주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안전하여 항상 주의 법규들에 관심을 기울이리이다."**(시119:117)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잠1:33).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잠18:10).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19). 안식년이나 희년의 법규를 지킬 때 땅이 자기 열매를 내는데 그냥 적당히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냅니다. 풍성한 수확을 말합니다. 한 해는 흉년, 한 해는 평작이고 가끔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규를 지키면 계속해서 풍년으로 배불리 먹을 정도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흉년과 풍년에는 같은 땅에서 같은 수고를 해도 열매를 거두는 양에서 몇 배, 몇 십배의 차이를 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 희년을 지킴으로 그 땅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며,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합니다. 그들이 얻은 수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희년에 종들을 풀어주고, 부채를 탕감하고 땅을 돌려주는 일은 손해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없앰으로써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치안 비용이나 도둑이나 강도, 폭동, 사회적 갈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내야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지 기금을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이나 재산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하나님의 복지정책은 간단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원래의 상태로 Reset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 희년의 법규를 지킨다고 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굶어죽는다거나 이런 저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면 이집트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의 열매를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20). 안식년, 희년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지 않

고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그 해는 뭘 먹고 사느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 년간 무급 휴가를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걱정, 고민을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아무 것도 뿌리지 않았고 소출을 거두지 않았다고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6:31)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눅12:29). 하나님은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요, 돕는 자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란 사실만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21). 안식년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복을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를 나게 하십니다.** 그럼 안식년, 희년까지의 열매를 6년째에 모두 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섯째에 일곱째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열매까지 모두 거두게 하심으로 그 해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급 휴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22). **여덟째 해는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가리킵니다.** 일반 안식년이라면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립니다. 일곱 안식년이 지나 여덟째 해가 희년이라면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 때는 **아홉째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홉째 해까지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22)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해에 세 배로 주신 열매가 묵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새 땅의 새 열매를 얻을 때까지 묵은 비축분을 먹으면 됩니다. 주께서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주의 법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충분한 양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 장사를 하는 분들, 주의 첫 날에 문을 닫았던 성도들의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말 장사라 할 정도로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면 안되는 직종이지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쓰라린 마음으로 문을 닫고 교회로 갔지만 전체 수익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